

단신

명절음식 나눔

대전 유성구지회는 2월 9일 명절을 앞두고 탈북민 100가구에 떡국떡과 고기를 전달했다.

대전 서구 용문동분회는 2월 3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봉사단체와 함께 명절음식을 준비해 소외 계층 30가구에 지원했다.

코로나 예방 현수막 게시
충북 단양군지회는 2월 6일 대명콘도 앞 거치대에 설 명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현수막을 게시했다.

청년회장이 취임식
충북 청주시지회는 2월 4일 지회에서 제16대 도재현 청년회장과 제17대 오경호 청년회장의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충북 충주시지회는 1월 17일 자유회관에서 제24대 조장희 청년회장 이임식과 제25대 양익주 회장 취임식을 실시했다.

동네행복지킴이 봉사
충북 괴산군지회 어머니포순이봉사단은 1월 24일 문광면 독거노인가구를 방문, 집안 청소를 하며 말벗 봉사활동을 펼쳤다.
세종시 연서면분회는 1월 15일 관내 독거노인 25가구에 김 선물세트를 전달하고 건강 등 안부를 챙겼다.

무료급식 봉사
대전 중구 태평1동분회 여성회는 1월 22일 성락종합복지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급식 봉사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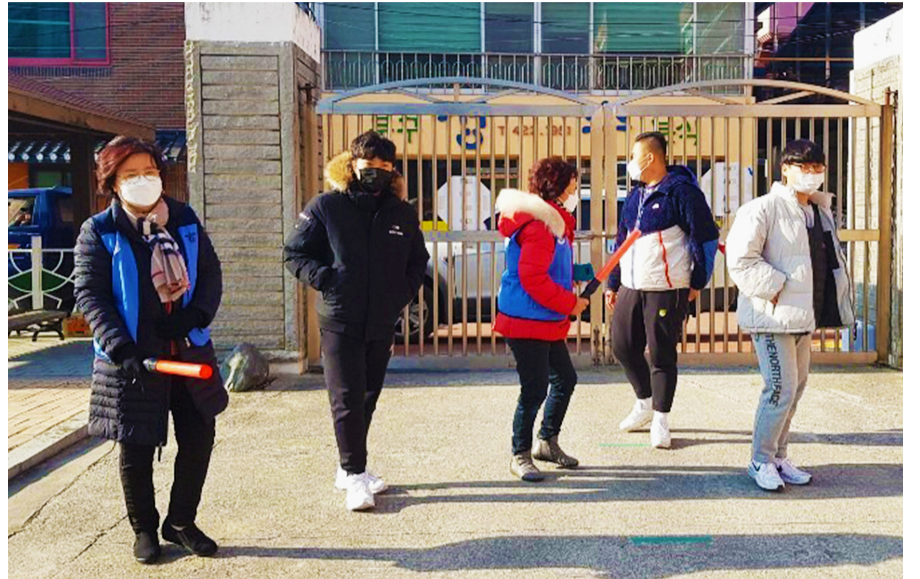
기부 릴레이 동참
충남 서천군지회는 1월 21일 서천읍 행복나눔위원회에 멸치 60박스를 전달하며 '2021년 좋은 이웃사촌 94호'로 선정됐다.

충북도지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공동치안 앞장

어머니포순이봉사단...등하굣길 학생 보호, 학교폭력 예방, 우범지역 방범순찰 등

충북도지부(회장 김덕중)는 청주시, 제천시,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지회 등의 각 지회 어머니포순이봉사단 단원 100여 명과 함께 1월 23일 지역의 학교 및 주변, 도서관, 산책로 등 청소년 보호지역을 다니며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학교폭력 및 성폭력 등의 위험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순찰 활동을 벌였다. 이날 단원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조를 편성해 순찰을 진행했다.

김덕중 회장은 "앞으로도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충북도지부 11개 지회는 매월 2, 4째주 취약지역에 대한 토요일순찰을 진행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설맞이 이웃돕기 물품 기탁

| 대전시지부 |

대전시지부(회장 박인국)는 2월 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이웃돕기를 위한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된 물품은 김세트로 지역내 취약계층 30가구에 전달됐다.

박인국 회장은 "코로나로 모

두가 힘들어 하는 이때 모든 회원이 장학금 전달을 비롯한 동네행복지킴이 봉사와 어머니포순이 봉사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변의 소외된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회 운영위원회 개최

| 세종시지부 |

세종시지부(회장 최충신)는 1월 27일 '2021년 제1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지부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 보고, 2021년 사업계획 등에 대한 사무처의 보고 후 지부 발전 방안

등 논의에 이어 국민민복 가치 실현에 대해 결의를 다졌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입실 전 발열체크 후 입장하고 80석 규모 강당에서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 진행했다.



신년하례회 화상회의 개최

| 충북도지부 |

충북도지부(회장 김덕중)는 1월 26일 시·군지회 회장, 사무국장, 도협의회장들과 신년하례회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김덕중 회장은 인사말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철학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안보지킴이 활동과 지역 봉사를 통하여 국민운동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코로나 종식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웃사랑 나눔 봉사

| 충남 공주시지회 |

충남 공주시지회(회장 김윤철)는 2월 2일 '이웃사랑 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

기탁한 쌀 400kg는 웅진동 행정복지센터와 신광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독거노인과 장애인가구 등에 전달된다.

김윤철 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